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2월29일-조계사 대웅전)



연휴 기간이었지만, 김로법문을 들으려는 2천여 불자들의 신심은 발길을 조계사로 향하게 했다.

# 나 자신 바로 알면 영원한 행복 얻어

타고 어떤 거룩한 사람이 큰 코끼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가막힌 일이라서 사람들이 이 존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존자가 선정에 들어서 살펴보니 그것은 마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왕의 신통술을 제압했습니다.

그후 존자가 "대개 마왕이라면 신통술이 있으니까 부처님 모양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마왕은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자께서 저에게 절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부처님 모양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존자가 지기도 모르게 절을 했습니다. 마왕이 "존자여 절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존자는 "제가 절을 한 것은 마왕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지심귀례(至心歸禮)를 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왕은 "존자께서 이러하건데 이천년 삼천년 후 말세에 제가 부처님 몸으로 나타난다면 그 누가 속지 않겠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우바리다다 존자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속지 않으려면 회광반조(回光返照) 하라. 전면에 나타난 것을 보는 이놈이 무엇인지 알아서 살펴라. 무엇이고? 하고 깊이 의심 관(觀)을 하면 모든 마귀는 머리가 깨지고 혼적조차 없어진다" 했습니다. 이-

뭣고! 하는 곳에 속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공부는 정말 위험천만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야 합니다.

남악회양 선사 회상에 마조 선사가 있었습니다. 마조 스님이 8년동안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는 중에 남악회양 선사가 앞에 다가가서 "뭘 하느냐"하고 물었습니다. 마조 선사가 답하기를 "깨달아 부처가 되기 위해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남악회양 선사가 기왓장을 깔고 있는데 마조스님이 다시 물기를 "기왓장을 왜 깔고 있습니까?" 남악회양 스님이 답하기를 "기왓장을 깔아서 거울을 만드려고"

### 여래·조사선이 최상승선

한다네." 마조 스님이 말하기를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 만든다는 말은 스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부처가 된다는 말은 자네에게 처음 들네. 앉아서 부처가 될 모양이면 산이고 바위고 다 부처가 됐겠다. 앉아서 부처가 됐겠다고 하는 것은 너밖에 못됐다"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조 선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남악회양 선사가 "소가 가지 앞을 때면 소를 때려야 되겠느냐 수레를 때려야 되겠"



■ 대원 스님

1942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 1957년 16세에 상주 남장사로 출가했다. 원교암 스님을 은사로, 하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수계 했으며, 20세에 하동산 스님에게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그 뒤 오대산 상원사, 도봉산 망월사, 문경 봉암사, 김광사, 범어사, 해인사, 송광사, 봉도사 극락암등 제반선원에서 안거하면서 효행, 풍산, 고령, 강령, 진강, 황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을 모시고 공부할 경책 받으며 오로지 선 수행으로만 일관했다.

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옛날 어느 절에 공부 많이 한 훌륭한 조실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야 소를 때려야지"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왜 웃느냐"고 조실스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스님, 소를 때리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마조 스님이 회양 선사에게 소나 수레를 때려야 된다고 했으면 "너는 아직 안됐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조 선사는 그 한마디에 뒤집어 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선이어서 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범법처럼 모두 선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에는 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등이 있습니다. 범부, 외도선 등은 선이 아닙니다. 최상승선이 바로 여래선이고 조사선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편안하느냐. 이게 바로 '안심입명처(安心立命處)'라. 안심입

### 욕망·욕심 버려야 마음에 평화

명치는 마음이 편안함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요약하면 바로 '안심입명처'입니다.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알면, 영원한 안심입명처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극치에 달하면 한글귀 깨닫습니다. 옛날에는 법문을 한다면 백리 길도 걸어서 갔습니다. 지금은 무슨 법문을 할까 하고 걸어서 가면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법문을 들으러 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가서 죽고고 앉아있으면 들어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법문은 철저한 믿음으로 다 비워버리고 산승의 말을 듣는 동시에 물론 여러분의 사는 자리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뒤집어져서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새가 하늘을 높이 날으니 그 자취가 없고/ 영양이 높은 나뭇가지에 빨을 걸고 잡을 자니/ 자취를 찾아 볼 길이 없네/ 빨과 손을 놓으니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 전체가 드러나고/ 조각배를 탄 어부는 갈대 밭에서 잠을 잔다. (주장자 세 번 내려치고) 어-어!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법문, CD와 테이프 보고 들으세요"**

고우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동영상 CD와 테이프 등으로 다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0>



### 창조주 신앙 어떻게 볼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유일한 창조신을 신봉한다. 인간과 세계의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창조신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우주 비범법처럼 모두 선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에는 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등이 있습니다. 범부, 외도선 등은 선이 아닙니다. 최상승선이 바로 여래선이고 조사선입니다.

계에서의 생애만 볼 수 있었고 그 이전의 생애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저 브라흐마가 우리를 만들었고, 그는 불변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에 의해 창조된 우리는 무상하며, 수명이 짧아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브라흐민들이 어떻게 브라흐마를 창조주로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브라흐마 천계에 존재하는 중생들은 브라흐마 천계에 제일 먼저 온 자를 창조자로 그릇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오해의 발생은 제일 먼저 태어난 자가 홀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다른 중생들의 출생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침 극광 천에서 수명과 복을 다한 중생이 태어나게 됨으로서 자신이 다른 중생들을 창조했다고 믿게 된 것이다. 만약 브라흐마 천계에 태어난 중생이나 인간계에 태어난 중생이 극광천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브라흐마를 창조자로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개발되었다면 브라흐마를 우주의 창조자로 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붓다는 인격신의 전능(全能)이라는 속성을

## 붓다, 인격신의 전지전능한 힘 부정 인간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 중시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가 수축할 때 중생들은 거의 모두 극광천이라는 천상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즐거움을 음식으로 삼아 장하게 되었다. 팽창하는 우주에 탕진 브라흐마 공진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 중생이 극광천에서 죽어 이 탕진 브라흐마 천계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오랫동안 홀로 지내다가 다른 중생들이 이곳에 태어나 함께 지내기를 소원했다. 그때 마침 다른 중생들이 브라흐마 천계에 태어나서 처음 태어난 중생과 함께 지냈다.

부정한다. 전능이란 일어난 일, 현재 일어난 일, 일어날 일을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브라흐마의 전능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이 전연 부정되는 것이다. "살인자들은 살인을 하도록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마찬가지로 도둑놈도, 음탕한 자도, 사기꾼도, 험담자도, 꾸짖는 자도, 미리서게 말하는 자도, 악의를 품고 있는 자도, 미워하는 자도, 사견을 가진 자도, 누구든지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창조되어진 것이다."

처음 브라흐마 천계에 태어난 중생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나는 위대한 브라흐마이며,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과 미래에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의 아버지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나에게 의해 창조된 것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만약 다른 중생들이 이곳에 태어나라고 하는 나의 소원에 따라 이들 중생들은 태어나게 된 것이다" 뒤에 태어난 중생들도 이미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중생을 그의 주장처럼 생각했다. 어떤 중생이 브라흐마 천계에서 인간계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는 성장하여 출가 수행하였다. 선정 수행의 결과로 그는 자신의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브라흐마 천

만약 모든 것이 신에 의해 계획되고 창조되었다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상벌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악인은 항상 자신의 악행을 신의 의지로 돌리고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외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악한 일을 하도록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만약 묻는다면 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신의 창조 능력에 그 책임을 돌리면 종교적 노력이나 수행은 무의미하게 된다. 붓다는 지금 갈수하는 행복과 불행이 모두 과거의 업에 기인한다는 속명론이나 모든 것은 원인이 없이 우연히 발생한다는 무인론(無因論)과 마찬가지로 창조론도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을 부정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과(경주)

#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 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채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 **누구나 길을 찾아 원하는 삶을 열어준다.**
- ◆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요의 평원 속으로 이끌어 준다.**
- ◆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프라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 **가진 것은 잃게 되고 배운 것은 남듯이 내가 클수록 장애가 심하고 내가 작을 수록 세상이 가벼운 것. 간, 쓸개 빼고 살면 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속을 텅 비우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백공, 선밀공, 프라나호흡, 프라나 동작, 36장 관조 ·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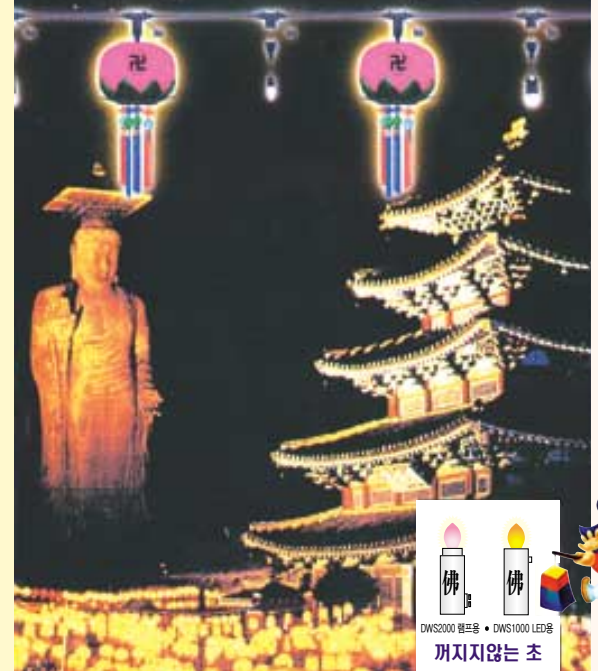
- ▶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면,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들)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본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 ▶ **전문 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제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 ▶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격 : 24세 ~ 33세까지  
■ 학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불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백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북동1동 729-4  
☎ 053) 471-0433

##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초 • 형사소통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 ▶ **사찰전구 (형종)**  
▶ 불계 고수전구, 인기전구  
▶ 용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엔트가 6배(특 월라엔트)로 밝이 열등이 밝고 열면 오래가 있다.
- ▶ **불제 견전지용 초**  
▶ 형사소통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소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탐들이, 방쟁)등 바람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방쟁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등에 적합합니다. (견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12266-2634 021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